

“책과 꿈, 20대 역경이 아침편지 자양분”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필화 사건 대학 제적후 기자·비서관 지내
17년째 띄운 아침편지 372만명 받아봐
충주 명상센터 ‘웅달샘’ 年 10만명 찾아

토인비 ‘역사의 연구’ 책으로 DJ와 인연
“함께 잘사는 세상이 꿈 너머 꿈”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중학생 아들에게 밑줄을 그어가며 책을 읽고 독서카드를 쓰도록 했다. 대학시절에는 필화(筆禍)를 겪으며 요즘으로 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닥’을 맞았다. 그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겪었던 쓰린 경험은 훗날 기자로, 작가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으로 활동할 때 ‘꿈의 자원’으로 쓰였다. 고도원(66)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은 17년째 매일 아침마다 짧은 글귀를 담은 ‘마음의 비타민’ 같은 편지를 띄운다. 또한 명상센터인 ‘깊은 산속 웅달샘’(이하 웅달샘)을 운영해 상처입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아루만지고 있다.

◇‘희망의 글’ 아침편지 독자 372만명=2001년 8월 1일, 그는 ‘더도 덜도 말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타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시작했다. 첫 ‘아침편지’는 중국 문필가인 루쉰의 ‘고향’이라는 책에서 뽑은 ‘희망’이란 글이었다. 17년이 지난 현재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www.godowon.com)와 앱을 통해 아침편지를 받아보는 ‘아침지기’(아침편지 가족)들만 372만여 명이다.

아침편지 문화재단과 명상치유센터 ‘웅달샘’은 충북 충주시 노은면 매방채산과 자주봉산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기자가 ‘웅달



매일 아침마다 ‘마음의 비타민’같은 편지를 띄우는 고도원 이사장.

샘’을 찾았을 때 고 이사장은 직원들과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아침편지 원고를 쓰고 있었다. 인터뷰에 앞서 ‘나눔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먼저 했다. “땡~!” 식사 도중 종이 울리자 식당내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멈춰라’ 놀이를 하듯 일제히 동작을 멈춘다.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딱 멈춰보면 향기도 느끼고, 매운맛·쓴맛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물이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 사람이 수고를 했나 생각할 수 있고...”

책과 꿈, 명상. 고 이사장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어린 시절 ‘책’을 통해 잉태된 ‘꿈’들은 한겨울 같은 20대 역경의 시간을 지나 50대에 ‘아침편지’와 ‘명상’으로 싹을 틔우게 된다.

전주 북중과 전주고를 졸업한 그는 목사와 학문, 두 가지 모두 뜻을 두고 1971년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신문인 ‘연세춘추’ 편집장을 맡고 있을 때 ‘십계명’이라는 칼럼란에 쓴 글로 인해 필화(筆禍)를 겪고 제적됐다. 강제 징집돼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그는 꿈꿨던 목사가 될 수 없었다. 회사 취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호구지책으로 포장마차를 열었고, 문방구를 하려다 사기를 당해 투자비를 몽땅 날리기도 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를 월간 ‘뿌리깊은 나무’ 발행인인 한창기 사장이 기자로 채용했다. 잡지가 신군부에 의해 폐간된 후에는 중앙 일보로 스카우트돼 의욕적으로 기사를 썼다. 정치부 기자 시절, 평민당을 출입하며 김대중 당시 총재와 ‘책’을 매개로 인연을 맺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생의 책을 얘기하시는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예요. 그 책은 중 2 때 회초리 맞아가며 독서카드 쓰는 법을 배웠던 책이었어요. 저와 그 책을 놓고 대화하다가 ‘젊은 친구가 속속들이 읽었구나’ 놀라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밑줄 그어놓은 문장에 감동=5년간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비서관 역할을 수행하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몸이 무너졌다. 일종의 뇌출중이었다. 이때 우연하게 아버지가 물려준 루쉰의 책을 들춰보다가 밑줄 그어 놓은 문장을 보게 됐다. ‘아침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중학생때부터 작성한 독서카드를 이용해 매일 ‘아침편지’를 띄우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망가졌던 그의 몸과 마음도 시나브로 치유됐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는 330개의 강이 흘러들지만 항상 맑음을 유지합니다. 모래알보다 더 미세한 새우모양의 ‘에피슈라’가 물을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우물’이 항상 맑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고 이사장은 ‘아침편지’를 운영하면서 명상을 알게 됐다. 청와대에서 나온 후 베트남 출신 탁났한 스님이 세운 프랑스 명상수행 공동체 ‘프림 빌리지’(자두마을)와 인도 ‘오로빌 마을’과 ‘오소 명상센터’를 찾아다니면서 ‘한국에도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주위의 만류에도 집을 팔아 종자돈을 마련했다. ‘아침지기’들도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냈다. 현재 자리에 7만여 평의 부지를 마련해 2010년 10월에 ‘깊은 산속 웅달샘’을 개원했다. 현재는 연간 10만 명이 찾은 정도로 세계적인 명상센터의 범주에 들어간다.

◇“실재 경험은 나중 성공의 씨앗”=“웅달샘” 프로그램은 ▲명상프로그램 ▲기업·단체 힐링연수 프로그램(휴잠·휴+잠깐 멈춤) ▲교사 직무연수 ▲깊은 산속 링컨학교 등 다채롭다.

고 이사장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암싸이’(암과 싸워 이긴 사람들)센터와 청소년 꿈너머꿈 센터, 아버지 센터, 디지털 빌리지(컬처&아티스트 센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앞서 고개 숙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센터’는 서울 서초구에 개설됐다. 또한 ‘아침편지’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전 세계에 배달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꿈을 이룬 다음의 ‘꿈 너머 꿈’이다. 삶도, 명상도 궁극의 목표는 ‘함께 잘 사는 것’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의 시선은 실패자와 실업자, 낙오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 역시 겪었지만 ‘실패의 경험은 나중에 정말 위대한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아침편지’ 마지막 인사말은 한결같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충북 충주=송기동기자 song@/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왕이 사랑한 보물’전 강연회

국립광주박물관 17일·22일·3월 7일



18세기 독일의 드레스덴 궁정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진행중인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4월8일까지)과 연계한 강연회를 교육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은 18세기 독일 작센의 선제후이자 폴란드 왕이었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1670~1733)의 수집품 가운데 명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하는 전시다. 첫 강연은 17일 오후 2시 김정락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드레스덴의 그린볼트-공예장식품컬렉션’을 주제로 독일의 빼어난 그린볼트박물관 소장품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소개한다. 드레스덴의 보물 창고였던 ‘그린 볼트’ 소장품이 소장가였던 왕실의 취향과 당대 최고의 예술적 재능이 결합된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연(2월 22일)에는 이가영 성신여자대 교수가 ‘드레스덴 궁정음악과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바흐’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마지막 세 번째 강연(3월 7일)은 임진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동아시아의 무예도와 마이센 도자-유럽 경질자기의 탄생’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전남대 유라시아연구소

18일 ‘영화와 영화 정책’ 학술대회

영화의 미학과 정책에 대한 흐름을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전남대 유라시아연구소(소장 류재한·불문과 교수), 유라시아학연구소(소장 김순임·독문과 교수), 프랑스문화·지역학연구소(소장 하영동·불문과 교수)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인문대 1호관 106호(이을호 기념강의실) 강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영화와 영화 정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상 콘텐츠 분야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의 미학적 가치와 정책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 논문은 ‘시네필리아와 상영 공간 : 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김이석 동아대 교수, 동의대), ‘현대 시대에서의 영화적 경험에 대하여’(정락길 강원대 교수), ‘지역분권시대 : 지역영화진흥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전병원 전 전북독립영화협회사무국장), ‘광주영화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류재한 전남대 교수) 등이다. 문의 062-530-312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간 10만여명이 찾는 명상센터 ‘깊은 산속 웅달샘’.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천년사업, 웅대한 막
-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무술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기획-광주올리 다시보기-프로로그

문화자산만들기

광주폴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충호의 꿈의 여행③

'축가사'가 나을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②

여행과 문화의 연동핀

'도시여행자'

매방 초대석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에요”

희망의 전지

유일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문화가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③
눈 부릅뜬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엽 문학관

해당수산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게마을, 울진 평해읍 거일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 마을

트렌드

‘위로 한 톨, 추억 한 줄’
옛날만화 열풍

배국남의 대중문화 지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18평론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병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장 지니 순한 땅
화순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인의 마음
- 맛있고 멋지서 소문난 화순두부